



카스트로 사임과 쿠바의 진로

지난 2월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공식적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2006년부터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쿠바의 장래’에 관한 논의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논의의 갈래는 크게 3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좌파는 카스트로보다는 쿠바와 쿠바국민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해방이라는 쿠바혁명의 이상을 수호하려고 한다. 중도파는 현실적으로 카스트로 없는 쿠바는 어떤 식으로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우파는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여 쿠바혁명을 원초적으로 무화시키려고 한다. 소수의 의지만으로 역사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쿠바는 이래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워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좌파와 우파는 쿠바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살림 람라니의 「피델 카스트로와 쿠바의 미래」는 《반역 Rebelión》(2008년 3월 2일)에 실린 글인데, 카스트로 사임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좌파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피델 이후의 쿠바: 안정, 운동, 개혁」(《openDemocracy》 2008년 5월 22일)은 라울에 중점을 둔 분석으로, 향후 쿠바 정세전망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광재성 교수의 「쿠바의 변화, 워싱턴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는 오래전부터 쿠바 진출을 희망해온 우리로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리에가의 「맙소사! 또 다른 카스트로가 쿠바의 권력을 잡았구나」(《AEI Online》 2008년 3월 12일)는 날이 선 강경 우파의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 피델 카스트로와 쿠바의 미래

살림 람라니

2008년 2월 19일, 피델 카스트로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차기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성명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혁명지도자 카스트로는 약 18년 동안(1959년 2월~1976년 1월) 수상을 지내고, 1976년 12월 2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수행했다. 그런데 국가평의회 의원과 의장, 국무회의 각료를 임명하는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¹⁾

퇴진의 이유

피델 카스트로의 건강상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덧붙여, 카스트로는 쿠바 국민들이 자신의 부재상황에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이것이 자신의 “제1 책무”라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로, 카스트로는 쿠바 국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최근 저를 국가평의회 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저는 국가평의회 의장직과 군 최

1) Fidel Castro Ruz, “Mensaje del Comandante en Jefe”, *Granma*, 19 de febrero de 2008.



피델 카스트로의 “총사령관 메시지”가 실린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를 읽고 있는 쿠바 시민.

고 사령관직을 바라지도 않고 또 수락할 의사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바라지도 않고 또 수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²⁾

카스트로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혔다. “그러므로 왕성한 활동과 전폭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직위를 맡는다는 것은 내 양심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 항상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성공 앞에서 신중하고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³⁾

이러한 결정은 당연하다. 피델 카스트로는 이미 2007년 12월 17일자 서한에서 “직위에 연연하지” 않겠으며, 이는 “끝까지 변함

2) *Ibid.*

3) *Ibid.*

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⁴⁾ 쿠바인들은 사임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 없이 평온하고 침착했다. 물론 아바나와 쿠바 전역에서 카스트로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⁵⁾ “오늘 수많은 쿠바인들이 슬퍼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쿠바는 화요일 카스트로의 사임 소식 앞에서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반응을 보였다 [...]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는커녕, 급격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조차 없었다.”⁶⁾

미국의 반응

미국에서는 “내정간섭적인” 논평이 쏟아졌다. 항용 그렇듯이, 이러한 논평에서는 식민주의 냄새가 진동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쿠바 국민들과 협력하여 민주화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쿠바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조차 백악관의 구시대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우리 미국인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유럽, 서구는 물론이고 전세계 국가와 협력하여 쿠바를

4) Fidel Castro Ruz, “Carta de Fidel a la Mesa Redonda”, 17 de diciembre de 2007.

5) 필자는 현재 아바나에 머무르고 있다.

6) Will Weissert, “Castro Retirement Managed From Start”, *The Associated Press*, 19 de febrero de 2008.

7) “Washington Quotes on Castro. U.S. Government Reactions to Cuban President Fidel Castro’s Resignation Monday”, *The Associated Press*, 19 de febrero de 2008.

압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⁸⁾

반면,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민주당, 코네티컷주)은 이성에 호소했다. “미국의 대 쿠바 봉쇄조치는 역사상 가장 후진적이고 비효과적인 대외 정책이다. 미국은 마침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공화당, 애리조나주) 또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접근”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⁹⁾

피델 카스트로의 공식 발표가 있던 바로 그날, 전체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104명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 쿠바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하고 행동할 때이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하원의원들은 그런 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정책은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통해서 쿠바정부를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런 정책이 전혀 무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존 네그로폰테 국무성 부장관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인간적인 대 쿠바 경제제제조치를 철폐할 의향이 없으며, 대 쿠바 적대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¹¹⁾

이러한 논평은 워싱턴이 쿠바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8) “Washington ve a Raúl Castro como un ‘dictador lite’”,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2008.

9) “Washington Quotes on Castro. U.S. Government Reactions to Cuban President Fidel Castro’s Resignation Monday”, *The Associated Press*, op. cit.

10) “Des parlementaires américains exigent un changement de politique envers Cuba”, *Agence France Presse*, 19 de febrero de 2008; “US Lawmakers Urge Review of Cuba Policy”, *Agence France Presse*, 19 de febrero de 2008.

11) *The Associated Press*, “US Says It Won’t Lift Cuba Embargo”, 19 de febrero de 2008.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제3세계의 소국을 잔인하고, 무모하고, 역효과만 내는 방식으로 대할 뿐, 반세기 동안 지속된 포위 전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의 반응

유럽 연합 국가들도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과 동일한 정치적 수사를 반복함으로써 쿠바가 어떤 형태의 내정간섭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수상은 “쿠바 정권의 점진적인 민주화”를 요구했다.¹²⁾ 영국의 외무부장관은 “인권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광범위한 정치경제 개혁을 주문했다.¹³⁾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 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브뤼셀에서 “민주화 이행”을 언급했으며, 한스 게르트 뢰터링 유럽의회 의장 또한 동일한 논리를 폈다.¹⁴⁾

쿠바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스페인조차 쿠바인들이 수용할 수 없고 또 상처받을 표현을 사용했다. 카를로스 웨스텐드로프 주미 스페인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스페인과 쿠바의 관계개선이라는 문제에서 미국 내 친스페인파나 쿠바공동체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인 이견이 아니라 전술적인 이견이다.”¹⁵⁾

12) “Fillon: la ‘vraie question’ pour Cuba est celle de la démocratie”, *Agence France Presse*, 19 de febrero de 2008.

13) “Bush: Salida de Castro debe ser inicio de transición”,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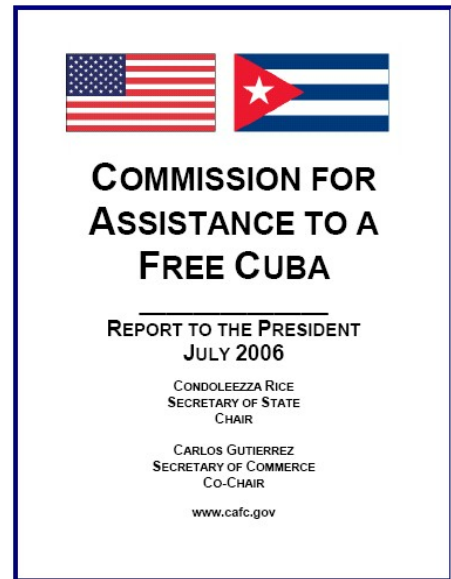
14) Wilfredo Cancio Isla, “El fin de una era”, *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2008.

15) Wilfredo Cancio Isla, “España favorece diálogo abierto con La Habana”, *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2008.

미국이 천명한 목표는 쿠바를 신식민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이는 1992년의 토리첼리 법과 1996년의 헬름스 버튼 법, 그리고 자유쿠바원조위원회(Commission on Assistance to a Free Cuba)의 2004년 보고서와 2006년 보고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¹⁶⁾ 그런데 스페인이 미국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수치이며, 정치적으로는 비열한 짓이다.

이탈리아는 비록 유럽 연합의 부당한 대 쿠바 공동입장(Common Position)과 정치경제적 제재조치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훨씬 건설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은 아니다. 도나티 디 산토 이탈리아 외무부 중남미국장 역시 “민주화 이행”과 “인권 개선”을 언급했다.¹⁷⁾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을 벗어난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대 쿠바정책을 채택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오만과 철면피만 뻥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¹⁸⁾ 민주주의와



자유쿠바 원조위원회 2006년도 보고서 표지. 이 위원회는 2003년 10월 1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창설한 대통령직속기구로 국무장관이 위원장이며, 미 행정부의 대 쿠바정책을 총괄한다. 2004년 보고서와 2006년 보고서에서는 카스트로 이후 쿠바 과도정부 수립 방안과 미국의 참여를 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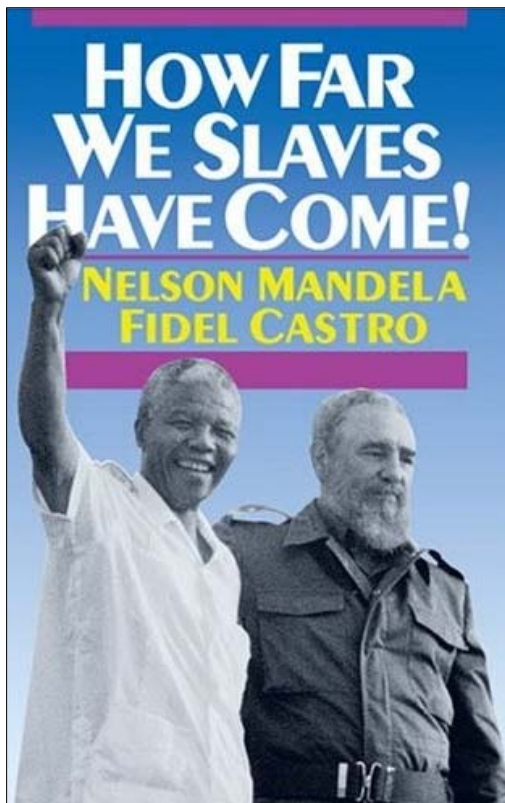
16) Salim Lamrani, *Fidel Castro, Cuba et les Etats-Unis* (Pantin: Le Temps des Cerises, 2006), capítulo IV.

17) “Expectativa mundial por renuncia de Fidel Castro”,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2008.

18) Amnesty International, Informe 2007.

인권을 쿠바에게 가르칠만한 도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라틴아메리카와 제3세계의 반응



1991년 7월 쿠바를 방문한 넬슨 만델라와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문을 수록한 책. 이 책에서 만델라는 앙골라의 “퀴토 과나발레에서 인종차별주의 군대[남아프리카 군대]가 패배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 퀴토 과나발레 전투는 남아프리카 해방투쟁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카스트로와 쿠바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앞으로도 쿠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단 한 사람 때문에 좌우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¹⁹⁾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과정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 나는 쿠바 국민들은 매우 존경하며,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 어느 나라나 국민이 정부를 결정하므로 우리는 쿠바인들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쿠바인들은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것이다.”²⁰⁾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살아 있는 전

19) “Expectativa mundial por renuncia de Fidel Castro”,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op. cit.

20) *Ibid.*

설이다”라고 툀라 대통령은 회고했다.²¹⁾

멕시코 정부는 “수개월 전에 시작된 관계개선 논의를 진척시키고자하는 쿠바의 의지는 확고하며, 쿠바와 멕시코는 상호호혜와 존중에 따른 완전한 관계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쿠바와 관계개선은 멕시코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멕시코 정부는 쿠바국민들의 의지와 자결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며, 쿠바 역사상 새로운 국면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사건을 계속 주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²²⁾

칠레와 과테말라 또한 피델 카스트로의 결정을 환영했다.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 대통령은 “쿠바와 전면적인 우호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²³⁾ 호세 미겔 인술사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쿠바가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쿠바 국민의 행복에 가장 적합한 길은 쿠바인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모색해야 한다.”²⁴⁾

한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피델 카스트로가 “항상 전위에 서 있을 것이며, 피델 같은 사람들은 결코 은퇴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쿠바 국민은 세계에, 특히 제국주의에 쿠바혁명이 한 사람, 한 단체, 혹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²⁵⁾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권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카스트로를 “살아 있는 전설”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또 “쿠바 국민은

21) “Des appels à davantage de démocratie à Cuba”, *Libération*, 20 de febrero de 2008.

22) “Expectativa mundial por renuncia de Fidel Castro”,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op. cit.*

23) Ibid.

24) Gerardo Reyes, “Sorpresa y dudas en América Latina por renuncia de Castro”, *El Nuevo Herald*, 20 de febrero de 2008.

25) “Chávez: Fidel no renuncia, siempre estará en la vanguardia”, *Agencia Bolivariana de Noticias*, 19 de febrero de 2008.

카스트로 대통령의 지도 아래 아프리카 피압박 민중해방,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피압박 민중 해방에 참여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아프리카민족회의는 쿠바 군인 30만 명이 앙골라의 독립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 철폐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쿠바 국민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혁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 파견하여 재건과 발전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 역시 피델 카스트로의 결정을 환영하고, 쿠바와 연대를 과시했다.²⁶⁾

쿠바인들은 2008년 2월 20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메사 레돈다〉를 통해서 전세계의 반응을 고스란히 들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부 서구 국가들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독립을 얘기할 때만이 상처받은 감정을 드러냈을 뿐이다. 서구는 존경, 상호호혜, 내정 비간섭에 기초한 언어만이 쿠바인들에게 들린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행과정을 운운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쿠바인들은 절대로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 시장경제란 쿠바의 주권과 사회 장악력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말이다. 사실 문제는 지속적인 혁명이다. 이런 혁명이 쿠바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당연하지만 그 결과를 과거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서구 사람들은 쿠바인들이 카스트로의 퇴진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재 쿠바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정치적·역사적·도덕적·정신적 지도자 카스트로에게 무한한 존경과 칭송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쿠바인들은 카스트로가 대통령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

26) “Personalidades mundiales elogian altura política de Fidel”, *Granma*, 21 de febrero de 2008.

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총사령관직을 사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쿠바는 어떤 압력이나 공갈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혁명정부는 워싱턴이나 서구의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쿠바의 운명을 쿠바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인 고려야 어떻든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은 피델 카스트로 덕분에 호세 마르티의 조국[쿠바 - 역주]은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를 얻었고, 선진국에 버금가는 인간 발전을 이룩했으며, 제3세계는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국제적인 위신을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쿠바인들은 카스트로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번역: 서라연]

살림 람라니(Salim Lamrani) - 프랑스인 교수이자 작가이며, 미국과 쿠바관계 전문기자이다. 저서로는 *Washington contre Cuba* (Pantin: Le Temps des Cerises, 2005) 등이 있다. 이 글은 인터넷 잡지 《반역 Rebelión》에 실린 “Fidel Castro y el futuro de Cuba”(2008년 3월 2일)를 번역했다.
